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6

▶ **77회 예고**
아쇼까왕의 대군은 깔링가국으로 진군한다. 보병 60만 명은 강가강에서 전선을 타고 이동한다. 기마부대 10만 명과 코끼리부대 9천 명은 육로를 달린다. 1차 집결지인 옛 앙가국 짬빠성은 17요자나 거리로 강가강이 흘렀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

깔링가국 정벌은 마우리아국 전군이 나섰다. 전군은 빠딸리뿌뜨라 성 안팎에서 출동준비태세 단계로 돌입했다. 코끼리부대 9천 명과 기마부대 10만 명은 성 밖에서 육로로 이동할 준비를 했고, 보병 60만 명은 강가강 강변에서 전선에 오르기 위해 야영을 했다. 보병은 전선을 타야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전선들이 마우리아국 모든 곳에서 모이고 있었다.

전군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아쇼까라마 주지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마하데바라 수상을 찾아와 건의한 문제 때문이었다. 어제 늦은 오후였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마하데바라 수상 접견실을 예고 없이 들렀던 것이다.

"장로님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문이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전투는 군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문들은 전장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마하데바라가 고개를 저었지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진지했다.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전장 터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사문은 붓다의 말씀으로 불안한 군사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이 필요합니다."

마하데바라가 웃었다. 출동준비태세 단계인데, 지금 이동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의 규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상께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까?"

"대왕님이 총사령관입니다. 저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출동을 늦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었다. 마하데바라는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빠딸리뿌뜨라 성에 남아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왕님을 뵐 수 있습니까?"

"강가강에 나가 계십니다. 강가강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대왕님께 꼭 사문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비님께서 저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어 생각해 낸 것이 이동법당입니다. 대비님은 붓다의 가피가 대왕님께 내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붓다의 가피가 내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붓다를 믿는 만큼 붓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자신을 믿음의 상속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문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승가의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왕님께서 장로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상님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백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하데바라는 의아해 했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말했다.

"왜 난감해 하십니까?"

"전장 터에 나가는 장수와 군사들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마음이 불안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극복한 장수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복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동법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왕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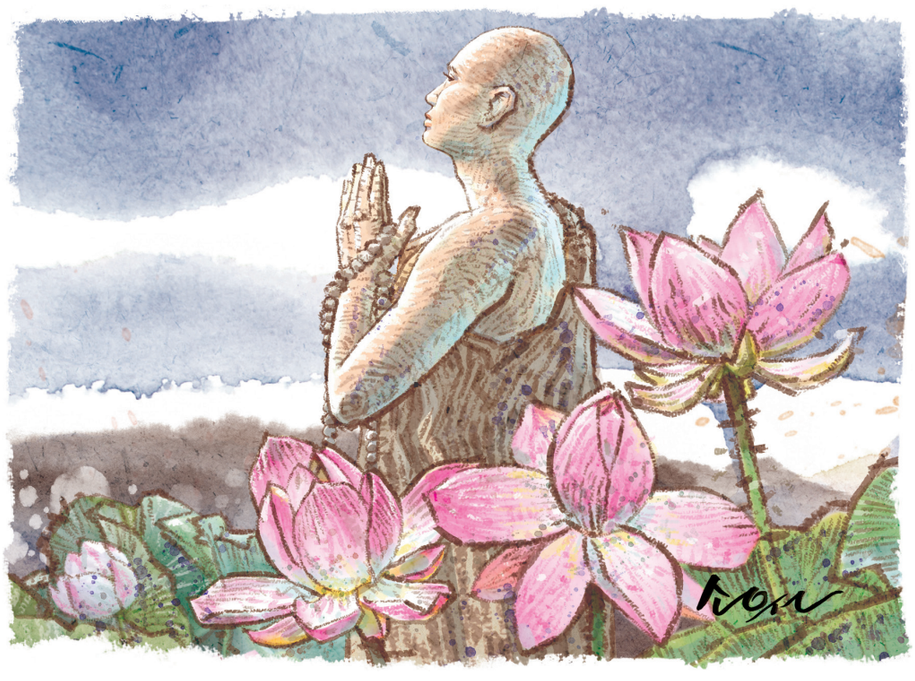
그제야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에게 군권이 있다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므로 모든 힘을 다 모아야하기 때문이었다. 붓다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수십 마리의 양을 잡아 신들에게 제사지내는 희생제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건의로 없어졌지만 전쟁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부활하고 싶은 것이 마하데바라의 마음이었다. 선왕 때부터 자주 했던 희생제는 아쇼까왕이 즉위해서도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빠딸리뿌뜨라 성에 오기 전까지는 그 전통이 이어졌던 것이다.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와 헤어진 뒤 수상 접견실에서 뜨거운 짜이를 한 잔 더 마셨다. 비록 자신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관할 수는 없었다.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거들어야 했다. 예전에 깔링가국 정벌 실패 책임으로 추방당했던 아픈 기억도 되살아났다.

어느 새 초저녁이 되어 선선한 바람이 창을 넘어왔다. 하얀 비단 커튼이 펄럭였다. 마하데바라는 창을 닫으면서 검푸른 어둠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하늘을 응시했다. 하늘에는 아쇼까왕이 끼고 다니는 상아반지 같은 초승달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마하데바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하루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마하데바라는 말을 타고 아쇼까왕 침전으로 갔다. 말먹이꾼 군사가 말했다.

"수상님, 대왕님께서는 강가강 임시군막에 계시지 않을까요?"

"아차, 내 정신이 나갔구먼. 허나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대왕님 침전 다실로 들어가 보자."



침전 다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마하데바라는 불을 보고 아쇼까왕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마하데바라의 예감은 맞았다. 아쇼까왕이 창 너머로 걸어오는 마하데바라를 발견하고는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마하데바라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침전에 계시지 않았다면 소신은 강가강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소?"

"소신이 생각할 때는 급한 일입니다."

"잘 됐소. 오후에 대비님을 여기서 뵙고 모처럼 정담을 나누었소. 대비님께서 좀 전에 가시어 이제 강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소."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마하데바라는 다르마 대비 얘기부터 꺼냈다. 아쇼까왕이 다르마 대비의 말이라고 하면 일단 마음을 열기 때문이었다.

"대비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부탁했다는 것이오?"

"전장 터에 나가시는 대왕님께서 붓다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장 터까지 이동법당을 끌고 가자는 것이오?"

"뗏목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법당을 만들면 무슨 이익이 있소?"

"전장 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사문들이 법문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소."

"장로님은 대왕님의 일에 방관할 수는 없어 출입이 통제된 강가강으로 가지 못하고 소신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동법당을 만드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오?"

"바퀴가 달린 거대한 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목수들을 다 부른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나는 급하오. 내일 새벽에 출동명령을 내리려고 했소. 그래서 오늘 다르마 대비님을 뵌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그래도 재고해 주십시오. 전쟁에서는 붓다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들이 도와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깔링가국 정벌은 할아버지 대왕님, 아버지 대왕님의 숙원이었소.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정벌할 것이오."

"소신은 마음이 급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쇼까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내일 새벽에 출동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동법당을 만들자고 건의하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출동이 늦어지면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 뻔했다. 군수물자는 예상보다 더 필요할 터였다. 속전이 돼야만 군수물자는 그만큼 더 절약되기 때문이었다. 코끼리부대만 해도 9천 마리의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풀과 과일은 어마어마했다. 9천 마리의 코끼리는 작은 산 하나를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기병부대 10만 마리의 말이 먹는 풀과 물도 마찬가지였다. 보병 60만 명이 먹는 군량미도 하루에 창고 열 개 동을 바닥나게 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소. 이동법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출동을 늦추겠소. 대신 수상 책임 하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이동법당을 만드시오."

"예, 대왕님."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또 다른 법문은 없었소?"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백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는 붓다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붓다의 말씀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소."

"소신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마하데바라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상 접견실로 가서 밤을 새웠다. 아쇼까왕도 강가강 임시군막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비 띠쉬아락시따를 불러 침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마하데바라는 다음 날 새벽녘에 비서실장 격인 대신을 급히 찾았다. 깔링가국 정벌에 참전하지 않고 마하데바라를 보좌하는 대신이었다. 마하데바라가 지시했다.

"코끼리가 끄는 큰 수레를 만들 것이오. 대왕님 지시라오."

"대왕님이 타실 수레입니까?"

"아니오. 코끼리가 끄는 이동법당 수레라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늙은 목수들을 아쇼까라마로 모이게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하데바라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자문을 받아 이동법당을 만드는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측근인 대신은 목수들을 감독하고 목재를 구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수레바퀴 재목은 참나무 종류인 살라나무, 법당은 모두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의 의견대로 전단향나무를 사용했다. 목수들 중에서 일부는 살라나무 바퀴에 엷은 철판을 씌웠다. 거대한 수레는 바퀴를 달자 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러자 우두머리 목수가 전단향나무로 천개(天蓋)와 불상을 조각하고 또 일부 목수들은 불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목수들은 이동법당 수레를 한 달 만에 완성했다. 마하데바라 측근 대신이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밤낮으로 목수들을 지휘 감독했던 것이다. 이동법당 수레가 강가강 강변으로 내려오자 아쇼까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병 60만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아쇼까왕은 이동법당 수레를 뗏목에 실어 깔링가국 변경까지 운반하겠다는 작전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계속〉

